

페미니즘예술이 잘 팔린다.

「본격 페미니즘 연극」을 내세운 연극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가는가 하면 여성 삶을 잔잔하게 묘사한 소설과 영화가 연이어 선보인다.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남편과 애들이 나가면 온집안이 내 방인데...

지난해 11월부터 공연, 2만여명의 관객을 모은「자기만의 방」.

여자가 홀로 서려면 자기만의 방과 경제적자립이 있어야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연극은 페미니즘연극 붐을 일으킨 작품이기도 하다.

울들어 임신과 출산, 예비미혼모가 겪는 갈등을 그린 「다리밑에서 주웠지」, 여성의 성역할을 다룬 「클라우드나인」등이 막을 올렸고 사회적 성공을 꿈꾸는 직장여



연극「자기만의 방」이 끝난뒤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모습. 무대위 왼쪽이 배우 이영란씨, 오른쪽은 기획자 이해경씨.

소설 연극 영화 「여성 홀로서기」바람

페미니즘藝術「전성시대」

성이 등장하는 「톱걸즈」가 곧 선보일 예정이다.

소설도 다양하다. 지난해 「한국 페미니즘문학의 금기를 깬다」는 광고로 시선을 끈 梁貴子씨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비롯, 「꿈꾸는 인큐베이터」(朴婉緒), 「여자가 여자에게」(尹明慧), 「혼자 눈뜨는 아침」(李環子)등이 쏟아져 나왔다.



미니즘」이라고 내걸수록 손님을 끌기도 한다. 무엇보다

부들도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군요』

사람이나 눈물을 다룬 작품들엔 이미 식상한 여성들은 이제 보다 진지하게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무엇」을 원한다는 얘기도. 속 시원하게 홀로서기의 길을 개척해 가는 여 주인공에게서 대리만족도 느낄 수 있다.

제 대중속으로 파고든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여성운동이 이론서적이나 「피켓」속을 뛰쳐나와 예술로 승화된 것이다. 물론 지금 유행하는 페미니즘 예술이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 페미니즘은 요즘 잘나가는 「상품」으로 분류된다. 「톱걸즈」를 기획한 서울커넥션측은 『영세한 연극계에서 여성관객을 확실하게 잡는 방법이 페미니즘에 있다』

「후남이 콤플렉스」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한 MBC TV 「아들과 딸」의 한 장면.



고 들려준다. 과거 인기품목이었던 호스티스물대신 이제 페미니즘이 등장했는지 도 모른다.

모든것을 해체하고 상품

화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이라고 볼때 이같은 페미니즘예술의 붐은 「포스트페미니즘」이라고 부를 만하지 않을까.

(金順德)

중년女性들 “내 얘기” 공감...대리만족

영화쪽에서도 「그대 안의 블루」가 있고 TV에서는 「후남이 콤플렉스」라는 신조어를 낳은 「아들과 딸」 「서있는 여자」등이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페미니즘예술은 더이상 모험산업이 아니다. 오히려 페

문일까. 연극「자기만의 방」을 보며 속이 다 시원했다. 姜英愛씨(47·서울江西구 초곡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내가 느꼈던 갈등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 연극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주

여성해방운동이라면 그과 격한 이미지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사람들도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 참다운 남녀동등을 생각해볼 수도 한다.

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돼온 여성운동이 이